# 삶 속의 우리 새

원 병 오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참새 한 마리의 추락에도 그 나름의 섭리가 있다”는 햄릿의 대사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저마다의 위치에서 자신의 몫을 수행하며 자연 생태계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단아한 학(두루미)의 기품이나, 창공을 가르며 하늘 끝을 향에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기상, 그리고 화려한 꼬리 깃으로 풍광을 수놓는 공작의 흐드러진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새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참새나 까치, 제비처럼 너무 흔한 나머지 별 관심을 못 받는 평범한 새들 역시 알고 보면 무궁무진한 자연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쩌면 늘 곁에 있어 우리의 일부가 된 생활 속의 새들의 이야기야말로 우리네 삶의 이야기가 아닐까.

## 1. 참새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근한 새는 아마도 참새가 아닐까 생각된다. 새벽 거리를 청소하는 빗자루 소리,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는 자전거 바퀴소리, 그리고 아침상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달그락 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상되는 소리가 바로 ‘짹짹’거리는 수다스런 참새 소리가 아니겠는가. 씽씽 자동차의 소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과 멀어진지 오래이지만 도시의 매연과 소음 속에서도 여전히 참새는 늘 우리 곁에 있으며, 거기에는 참으로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가 숨겨져 있다.

참새는 위생조건이 나쁘고 빛이 부족한 공간에서도 비교적 무난하게 새끼를 길러낸다. 참새의 생활습성을 깊이 연구한 북한의 조류학자 림춘훈(1971)

은 참새가 열악한 환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모종의 생태적 적응을 하였을 것이라 추정하고 조사한 결과, 참새 둥지 속에 깔려있는 푸른 식물의 어린 잎들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산쑥, 사철쑥, 댑싸리, 갯는쟁이, 귀룽나무, 개살구, 복숭아나무, 삼, 들깨 등 다양한 식물을 포함하는 참개 둥지 바닥의 푸른 잎들에서는 모두 특이한 향기가 풍긴다. 정유를 포함하여 독특한 향을 내는 이들 식물 잎들은 둥지에서 참새 새끼와 어미의 습생을 방해하는 벼룩과 진드기 등 외부기생충을 쫓아내고 어린 참새의 피부에 병원성 미생물이 침습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학술적으로 "둥지위생현상"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참새 둥지 속 푸른 잎의 작용은 이들 잎 속에 포함된 물질에 의해 일어나는데, 예컨대 사철쑥의 카필린은 강한 항균제 역할을 하는 항생소로서 피부 및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균의 생장을 억제한다.

어미 새와 새끼를 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참새 둥지의 비밀은 또한 수많은 식물들 가운데에서 항균 역할을 할 수 있는 잎

들을 식별하는 참새의 능력과 직결된다. 식물의 향을 구별하는 참새의 후각 능력에 대한 연구는 그러나 여전히 명확한 과학적 증명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새의 후각이 특수한 물질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주장이나, 비둘기의 후각 판정 능력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 조류의 일반적인 후각 본능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특히 참새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까치

참새 못지않게 우리에게 가까운 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까치일 것이다. 까마귀과에 속하며 전체 길이 45cm, 체중 200g 정도의 몸집을 가진 까치는 열대와 아한대를 제외한 북반구의 전역에 서식하므로 전 세계인에게도 친숙한 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시행한 공개응모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거두어 영예로운 우리나라의 '나라새'로 선정된 바 있다. 까치는 우리 주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오지나 깊은 산 속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우리네 생활 속의 새이다. 사람이 심어 준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사람이 지은 곡식의 낟알과 과일을 먹고 사람을 가까이 하며 자라면 심지어 사람흉내까지 낼 줄 아는 지능 높은 새이지만, 흥미롭게도 서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와는 달리 까마귀와 함께 잡새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까치는 설화와 민담, 민요의 단골손님이기도 하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로 시작하는 노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불러봤음직한 정겨운 노래이며, 칠월칠석 신화에서 견우성과 직녀성의 가연을 연결하는 오작교를 놓아준 새가 바로 까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또한, 우리나라 옛 탄생설화에도 까치가 등장하는데, 신라 4대 왕인 탈해가 배안의 궤짝에 실려 떠내려 온 것을 알려주었던 것 역시 바로 까치였다. 이렇듯 사람의 인연을 연결하거나 상서로운 소식을 전해준다 하여 '아

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소식'이라는 말까지 있는 까치는 예로부터 함부로 잡거나 괴롭히는 일을 삼가던 길조였던 것이다. 일본에서 서식하고 있는 까치도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큐슈지방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까치까치 라는 울음소리가 일본어 발음의 승승(勝勝)과 비슷하다하여 서조((瑞鳥)로 여겨 가져갔다고 전해진다.

까치가 가장 많이 둥지를 트는 나무는 아카시아이고, 그 밖에 이태리포플러, 미루나무, 버즘나무, 은행나무, 가죽나무, 상수리나무 등 8종이며, 이른 봄 아직 잎이 돋아나기 전의 낙엽 활엽수에 가는 나뭇가지를 쌓아올려 마치 겨우살이처럼 보이는 둥근 보금자리를 만든다. 서울시내의 까치는 한 때 녹지 부족으로 인한 먹이의 고갈로 영양실조에 허덕이던 시절도 있었으나, 수년간 이루어진 다양한 수종과 종자식물 확보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덕분에 최근에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삶의 일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3. 제비

제비만큼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아온 새는 없을 것이다. 봄이 되면 남녘에서 겨울을 난 후 북상해서 이동해 오는 백만 단위의 철새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느낌이 드는 철새 또한 제비이다. 제비는 인가의 어느 곳에서나 처마 밑에 둥지를 틀며, 논 위를 날아다니면서 하루살이, 모기 등의 해충을 잡아먹는다 하여 고마운 새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예로부터 제비를 해치면 학질을 앓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우리가 잘 아는 흥부전에서 박씨를 물고와 자신의 다리를 치료해준 흥부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보은의 이야기는 제비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봄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제비의 속성을 잘 드러내주는 일화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남단에 위치한 부산이나 제주도에 남아 월동하는 적은 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제비들은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나고 돌아온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미새들은 귀소성이 높아 전년도 출생지에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다리 다친 제비가 흥부에게 되돌아온다는 옛 이야기가 그저 이야기인 것만은 아닌 게다. 가을이 되면 제비의 몸에 피하지방층이 생기면서 15그램 가량이던 체중이 22~26%나 늘어난다. 오랜 동안 굶고서도 장거리 여행, 가령 목포에서 중국 본토까지 350마일 가량이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날 수 있도록 에너지를 피하에 저장해 두는 것이다. 제비 조사를 위해 태국의 방콕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무렵의 늦은 밤, 도심의 전선에 앉아 잠을 자는 수만 마리의 제비 떼 중에 경기도 일원에서 새끼를 친 제비들도 적지 않게 섞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탄한 일이 있다. 고작 15그램 안팎의 작은 몸집을 가지고 온갖 희생을 감수하년서 먼 곳의 제 둥우리를 찾아드는 제비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영물로 그려진 것이 우연만은 아니리라.

어미 제비 한 배의 알 수는 보통 4~6개, 포란 기간은 13~15일이다. 새끼 제비가 부화한 후 어미로부터 먹이를 받아먹고 자라는 기간은 20~23일이며, 봄에서 여름에 걸쳐 환경에 따라 두 번까지 새끼를 친다. 자연 상태에서

라면 해마다 수가 불어야 할 제비들의 모습은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농가나 목조 건물이 많은 환경에서 흙벽에 지푸라기를 섞어 둥지를 트는 제비는 도시의 콘크리트 숲과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차별한 살상과 농약 남용으로 농촌에서 조차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현재는 안정적인 증가 추세에 접어들어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 4. 원앙(새)

오리가 나무 구멍에서 새끼를 친다면 모두들 의아해할 것이다. 지상으로부터 5~6미터 높이나 되는 높은 나무줄기에 뚫린 구멍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과연 어떻게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걸까.

오리의 무리 중 유별나게 다른 족속이 있는데, 이들은 지상보다는 나무 위에의 생활을 주로 하며 스스로 구멍을 파지는 못하지만 다른 새가 뚫은

나무 구멍이나 자연 수동(樹洞)에 보금자리를 정하고 새끼를 친다하여 일명 '나뭇가지에 앉는 오리'(Perching Duck)이라 불린다. 이들 '나무에 앉는 오리'의 대표적인 종이 바로 숲오리(Wood Duck)라 불리는 미국원앙과 아시아 지역의 원앙이다. 이 두 종은 모두 화려한 빛깔을 가진 오리로서 오래전부터 사육가들에 의해 상품으로 사육되었지만, 원앙은 미국원앙보다도 더욱 아름다워서 인기가 높았다. 은행잎과 같은 부채모양으로 뻗은 원앙의 둘째 날개깃은 원앙금침에 형형색색으로 수놓아져 일등 혼수품목이 되기도 했다. 일반 오리과의 다른 종들에서 종간 잡종이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데 비하여, 원앙은 다른 오리 종들과 교잡하여 종간잡종이 출현한 예가 없다. 고귀하고 기품있는 원앙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사랑은 신기하게도 원앙의 염색체가 다른 종의 그것에 비해 매우 특이하다는 사실과 상통하니, 참으로 신비스런 우리 조상님들의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

원앙은 러시아 시베리아의 아무르와 우수리 지방에서 중국 동북지방과 본

토의 양자강 하류에 이르는 지역에, 그리고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큐슈에 이르는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겨울에는 일부의 무리가 드물게 타이완이나 아쌈 지역까지 내려간 적도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텃새로 주로 산악지대나 개천 기슭에 서식하며, 남한에서는 가을에 북부지방에서 남하해 온 무리가 월동한 후 이듬해 봄에 다시 북상하거나 떠돌아다니는 무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제도와 제주도 해상에서 1,000~2,000개체 이상의 큰 무리의 월동군이 관찰되기도 하니, 그 장관을 볼 수 있는 지금의 세대들에게는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알을 낳고 바로 둥지를 떠나버리는 어미 원앙의 습성이나 여러 마리의 원앙 암컷이 하나의 둥지에서 산란한다는 사실이 관찰되면서 일편단심의 금실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원앙의 이미지가 사실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으나, 화려한 날개를 퍼덕이며 물가를 노니는 원앙 한 쌍의 그림 같은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원앙새가 여전히 원앙금침의 주인공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리라 믿는다.

## 5. 따오기

19세기 말 우리나라를 답사한 폴란드의 조류학자 타크자노우스키는 서울 근교에서 50마리 정도의 따오기 떼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전하며, 영국의 캠벨은 따오기가 우리나라에서 흔한 새이며 쉽게 사냥총의 밥이 되는 새라고 까지 표현한 바 있다. 언젠가 80세가 넘은 노교수 한 분에게 따오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어릴 적 하늘을 날며 우는 따옥소리를 들었다고 답하셨다. 그 따오기 소리를 어디서 들었으며 따오기가 어떻게 생겼나 다시 물으니, 따오기의 모습을 실제로 본 기억은 없으나 그 소리를 들은 곳은 어릴 적 살던 평양 부근이었다고 했다.

동화나 동요에도 따오기가 나오는 걸 보면, 따오기가 옛날에는 흔하긴 했던 모양이다. 10월 하순 경에 찾아와 3월 중순까지 머물며 겨울을 보냈던 따오기는 비교적 흔한 철새였지만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춘 희귀새가 되어

버린 지 오래이며 이제는 따오기를 정확히 본 어르신마저 거의 드문 형편이다. 필자만 해도 1966년 2월 판문점으로 가는 길가 초습지에서 한 마리를 처음 본 이래로 그로부터 13년 만인 1979년 1월 18일 비슷한 장소에서 다시 한 마리를 본 것이 전부였다. 그 때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자연 속의 따오기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았다. 필자의 관찰 이외에 따오기에 대한 기록은 1954년 1월 서울에서 미군이 구입한 한 마리와 1953년 파주에서 한국 군인에 의해 사살된 한 마리, 그리고 1958년 여름 부산 광복동 모 총포사에 진열되어 있던 박제품 1점 등 3점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전쟁 직후 밀엽으로 희생된 따오기들이다. 따오기는 절종위기의 자연보호조이며 천연기념물 제198호로 지정된 자연 문화재이지만, 야생상태의 따오기는 물론 국내 금사에서 사육된 따오기조차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1980년 대 초반 무렵까지 중국과 일본에서 보고된 자연 상태의 따오기 수는 두 자리 수를 넘지 못하는 수준

이었다. 따오기는 원래 시베리아 우수리 지방에서 중국 동북지방을 거치는 중국 전역에서, 그리고 일본의 북해도에서 큐슈지방에 이르는 지역에서 널리 번식했었으나, 한 때 한 자리 수까지 줄어든 적이 있을 정도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던 새였다. 그러나 지난 20 여 년간의 보호와 인공 번식 노력 끝에 2007년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따오기는 거의 1,000 여 개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금사에서 사육 중인 개체수와 자연 상태의 개체 수의 비율이 400:600 정도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따오기 서식지에 대한 보호는 물론 인공 사육에 들인 그간의 공은 적지 않았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던 인공 사육이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까지 아낌없는 정부 지원과 수많은 학자들의 땀이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옥따옥' 묘사되는 울음소리보다 훨씬 더 곱고 인상적인 따오기의 실제 울음소리를 우리나라에서도 다시금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인지,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아직은 묘연할 뿐이다. 이제는 들을 수 없는 따오기 울음소리는 한 번 파괴된 자연의 복원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는 소중한 교훈이다.

## 6. 뻐꾸기

'뻐꾹 뻐꾹 뻐꾹새 논에서 울고~'로 시작되는 동요에 등장하는 새, 뻐꾸기의 이름은 전형적인 그의 울음소리에서 비롯되었는데, COCKOO(영국), COUCOU(프랑스), KOEKOK(네덜란드), KUCKUCK(독일), KUKUSHKA(러시아), KAKKO(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이름만 보아도 단번에 알 수 있다. 또한, 세계 어느 곳에서나 흔히 접할 수 있는 뻐꾸기의 이름이 증명하듯, 지금까지 지구상에 알려진 뻐꾸기의 종은 무려 1백 27종이나 된다. 뻐꾸기는 수컷만이 뻐꾹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는 다름 아닌 짝짓기 울음소리이다. 뻐꾸기의 수컷은 봄에 짝을 찾기 위해 울음소리를 내는 반면, 암컷은 마치 암탉처럼 꼬꼬 하는 싱거운 소리를 낼 뿐이다. 하지만 번식기 내내 암수가 모두 거칠게 시끄러울 정도로 울어대니, 뻐꾸기는 그 명성대로

울음소리가 가장 인상적인 새라 할 수 있다.

뻐꾸기는 또한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는 묘한 습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습성은 물론 뻐꾸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데, 가령, 꿀잡새와 아프리카 바위 멋쟁이, 미국의 카우새 등도 비슷한 습성을 보인다. 그러나 뻐꾸기 종처럼 높은 기생성을 보이는 조류는 매우 드물어서, 이들은 자기 스스로 둥지를 만들거나 새끼를 키우는 예가 아예 없다. 인간의 눈에는 뻐꾸기의 이러한 행태가 신기한 난봉꾼의 모습으로 비치겠지만, 이유야 어떻든 뻐꾸기는 그들의 특이한 번식형태에 변함없는 강한 집착을 보인다. 뻐꾸기의 번식행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지 오래이지만, 아직도 그것의 복잡성과 분화에 대한 비밀을 완전히 밝히지는 못했다.

뻐꾸기의 알들은 크기는 같지만 색깔은 저마다 다르다. 암놈은 대개 48시간 간격으로 4~5개의 알을 낳으며, 한 알씩 다른 새의 둥지에 산란한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각각 다른 새의 둥지에 낳는 알의 색깔이 그 둥

지 속에 있는 주인새의 알과 같은 색을 띤다는 것이다. 예컨대, 휘파람새의 둥지에 낳은 알은 주인의 알과 같은 초컬릿색이며, 솔새 둥지에 낳은 알은 푸른색을 띠며, 밭종달의 둥지 속 알은 갈색이다. 이러한 알 색깔의 변화가 유전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애석하게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어떤 뻐꾸기는 50일 동안 25개의 다른 새 둥지에 25개의 알을 산란하기도 한다. 이 뻐꾸기는 자기 새끼를 키울 어미새를 조심스럽게 선택한 후, 신기하게도 미래의 양부모가 알을 낳는 바로 그날 산란한다. 양부모새의 둥지에서 알 한 개를 부리로 빼내고 그 자리에 자기의 알을 낳는데, 주인 알은 삼키거나 땅에 떨어뜨리는 '만행'을 저지른다.

뻐꾸기 알은 솔새 둥우리 같은 매우 작은 반구형 둥우리에서도 흔히 발견되는데, 여기서도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뻐꾸기는 분명 그 작은 둥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둥우리로 직접 들어가는 대신 부리로 자신의 알을 밀어 넣는다는 오랜 추측과는 달리, 뻐꾸기는 더 뻔뻔한 방법을 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미 뻐꾸기는 양부모 둥지를 고른 다음, 날개와 꼬리를 활짝 펴 둥지 입구에 대고 버티고 서서 산란한 후 그 알을 둥지 속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제 새끼를 입양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어려운' 과정이 매번 성공만 할 수는 없다. 알이 둥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자리에 놓이거나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면 어미 뻐꾸기는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고 알을 포기한 채 날아가 버린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참으로 '비정한' 모정이 아닐 수 없다.

신기하게도 부모 뻐꾸기의 '뻔뻔함'은 갓 부화한 새끼 뻐꾸기에게도 그대로 전수된다. 뻐꾸기의 포란 기간은 12일이므로 주인새의 알보다 먼저 부화하거나 동시에 부화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아직 털도 채 나지 않은 어린 뻐꾸기는 새로 부화하는 주인새의 새끼나 알을 밀어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뻐꾸기 새끼는 다른 새의 새끼나 알을 밖으로 몰아 낼 때까지 등을 대거나 짓밟는 행위를 계속하여 결국엔 먼저 들어온 뻐꾸기 알에서 부화된 새끼만이 남아 평화롭게 자라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렇듯 뻔

뻔한 새끼 뻐꾸기의 행동도 알고 보면 피할 수 없는 뻐꾸기의 숙명의 일부이다. 새끼 뻐꾸기는 오래지 않아 양부모새보다 훨씬 크게 자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양부모가 정상적으로 키우는 자기 새끼 4~5마리 분의 먹이를 혼자 먹어치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끼 뻐꾸기의 행동은 결국 생존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인 것이다.

체구 작은 휘파람새가 제 몸보다 몇 배나 큰 새끼 뻐꾸기를 키우는 모습은 어찌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드라마를 연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화시킨 뻐꾸기 새끼를 키우는 휘파람새의 소유욕 또한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력하다. 조그만 어미 휘파람새가 덩치 큰 뻐꾸기 새끼를 먹여 살리는 기간은 새끼가 자라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무려 20~30일 간이나 계속되며, 이렇게 힘겨운 양육과정에서 양부모 휘파람새는 그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본능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한다. 숲의 무법자 뻐꾸기와 초능력 휘파람새의 오묘하고도 신비스런 공생은 인간의 잣대로는 잴 수 없는 자연의 조화 그 자체이다.

한국의 조류는 2006년을 기준으로 518종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 중 텃새가 95종, 여름새 61종, 겨울새 104종, 나그네새 109종, 그리고 대부분이 남해 도서에 일시 기착하는 미조(迷鳥)가 104종이다. 한 때 현저히 감소했던 종과 개체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생태계 보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비례하여 더더욱 증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기에 소개된 우리네 삶 속의 새들이 보여주는 몇 가지 모습이 예증하듯이, 500종이 넘는 다양한 한국의 새들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이야기의 보고(寶庫)이다. 이들이 들려주는 자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값진 교훈이자 삶의 지혜이며, 나아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의 미래이자 삶 그 자체이다. 미국 중부의 한 동물원 현판에 적혀 있는 바대로, 우리의 자연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호할 수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을 '알고 있는' 자연으로 만드는 작업이야말로 자연과 함께 하는 미래로 가는 첫걸음일 것이다.